

증언집 1집 (라바울 - 박순애 할머니)

2집(송판임 할머니)

방선주, 일본군 '위안부'의 귀환 : 중간보고

“해방된 한국에서는 심지어 강제징용된 노무자들의 귀향증언조차 회귀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귀환한 군‘위안부’의 당대의 증언문헌을 찾는다는 것이 우선 허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입이 있어도 그 특수사정, 즉 수치감에 연유하여 지금껏 입을 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떴고 또 떠나고 있다.” 방선주, 227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에 재류하던 미국 선교사·영사관직원들이 1942년 귀국송환선을 타고 귀국 도중 미국 서울영사관이 국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에서 언더우드님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수많은 한인 처녀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하여 중국과 만주의 유곽으로 보내고 있는 데 대하여 한국인들에게 심대한 원한심을 심어주고 있다. 많은 경우 당한 가족은 이를 알리기를 꺼리며 당하지 않은 가족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대일 증오심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방선주, 231 재인용.

“이상의 전문이 보여주는 점들은 첫째로 일본 정부(또는 군)에서는 각지 주둔군을 위한 군‘위안부’ 송출의 재정을 만들어놓았고 이것을 각지 주둔 일본군에게 할당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로 여기에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가 중요한 중개자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로 군‘위안부’ 송출의 중심이 한반도였다는 상황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점. 다시 말하면 각지 주둔 일본군은 패전 직전까지도 한국에서의 군‘위안부’ 수입에 혈안이 되고 있었다는 점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1943년 3월부터는 ‘사치 향락 면에 대한 비상조치요강’이 생기고 유흥가의 단속이 심해지므로 1945년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내의 환락가가 시들해지고 도시의 작부·접대부들이 오래 전에 고갈상태가 되었다고 믿어진다. 한인 ‘위안부’에 대한 대륙 각지 일본군의 빚발치는 요구를 충족하려고 지금까지 사기 수단으로 생처녀들을 위안소에 보내오던 것이 여자정신대원의 강제징집이 가능해졌으니 여기에서 얼마든지 임의 차출이 가능해졌다고 추리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군사령부는 몽고지구군의 할당액의 10배를 거리낌없이 보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게도 된다. 하여간 이상의 세 전보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토론을 유발할 것이다.” 방선주 234

미국 OSS의 심리전요원들도 이 점을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일본군이 들어오기만 하면 노동력의 강제징집과 젊은 여자들의 위안소 징집이 쌍마차처럼 병행할 것이라는 판단을 많이 뿌렸다. 그 중의 두 건을 인용한다면 하나는 「대일본사령관의 포고」로 “日軍愛護民衆 凡當地之 保長 應隨時服從命令 對日軍之所要 徵募青年婦女 籌辦慰安所 必須立即實行”이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화보전단으로 농민이 농사하는 것을 보면 잡아가 죽도록 일을 시킬 것이며 추녀도 여자라면 보기만 해도 잡아가 위안(慰安)시키니 일본군이 들어오면 모두 도망가는 것이 낫다는 내용을 담았다(附圖 참조). RG 226 OSS당 E99 Box 84. 방선주 235 주 15.

버마전선 - 미치나(미이트키이나로도 적으나 잘못됨) - “일본 여자를 주체로 한 위안소는 대체로 후방에 위치했

1) 1942년도 국무부문서 895.01/162 PS/ET “Survey of Current Political Thought and Temper of the Korean People” 수록

고 사지(死地)인 전선에는 한국인과 중국인 업소를 배치하여 마음대로 후퇴도 불허한 점에서 소모품으로서의 군'위안부의 성노예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방선주, 236-7.

최전선에서 후퇴하지도 못하고 일본군과 같이 '전사'한 경우: 방선주, 239-242(등충전투), 245(필리핀)

그런데 버마에서 살아남은 일본군 8개 사단 부대들은 영인(英印)군과 미군 또는 국부군에 밀려 태국 쪽으로 후퇴 작전을 하게 되는데, 보수적으로 따져 한인 군'위안부'가 1개 사단에 200명이었다고 쳐도 태국에 후퇴한 군'위안부'는 1,600명은 되어야 된다. 또 태국은 원래 동남아 군'위안부' 배급의 중간기지였으며 여기에도 일본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버마와 태국의 일본군에 배당된 한인 '위안부'는 최소한 2,000명은 있어야 했는데(최대 5,000명) 일본 패전 당시 이곳의 한인 '위안부'는 1,5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²⁾ 적어도 1,000명 정도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다. 전장터에서의 사망, 후퇴시 밀림에서의 사망, 토착인에 의한 유괴, 인도군이나 소수민족 용병들에 의한 납치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또 태국에서 배를 타고 귀향한 군'위안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확실치 않다. 필리핀에서 볼 수 있는 승선자명부가 없기 때문인데 알다시피 태국 민간에 지금껏 한인 군'위안부' 출신들이 생존했었다. 방선주, 243-4

미국 국립공문서관·국립국회도서관 소장자료,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編, 政府調査「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5 (龍溪書舍, 1998).

1. 연합군번역통역부국(ATIS) 관계문서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 조서 No. 24: PW saw both J and K women in brothels at Rabaul. (23쪽에 따르면 2개 총 100여명의 한국과 일본여성. 또한 28)
- 조서 No. 28(위아노 정기검진, 군사당국 통제, 모든 주요도시 위치. 마닐라, 5-6개, 각 10명의 조선, 필, 중국 여성. 라바울과 Davao에 존재. 간단히 'IANJO'로 표시)
- 조서 No. 30 (official Army brothel in BELAWAN, 조선인 없음, 성병예방에 진력)
- 조서 No. 31 ("Brothels are provided in the army" Davao에 조선, 대만, 원주민 위안부)
- 조서 No. 32 복무조건 - 상해 조선인 위안부 있는 위안소는 군통제하, Mindanao에 설립할 것. 뉴기니 일본군조직(46쪽)
- 조서 No. 35(미수록 자료): 조사보고서, 9쪽에 따르면 라바울 2곳, 약 100명의 조선, 일본 여성
- 조서 No. 37 "Whenever troops were stationed in a locality in numbers, brothels were immediately established by both the Army & Navy. (같은 취지의 진술은 자료집에 없는 No. 55, p. 7에도 발견됨) 통상 조선, 중국여성 때때로 suitable native women. "Profits go to the Services"
- 조서 No. 46 마닐라와 다바오에 조선인 여성 위안소 "Although these establishments were authorized by the Army, PW thought that profits went to the proprietors." (그러나 의심스러움) (같은 내용 미수록 No. 78)
- 조서 No. 48 위안소 군에서 제공 대부분 조선, 일본여성

2) RG 226. OSS檔;XI 20581 Siam-Korean Organization(Date of Report 7 September, 1945). 참고로 기타 한인들의 숫자를 적으면 연합군 포로수용소 수위 900명, 일본군 소속 5,000명, 도합 7,400명이었다.

- 조서 No. 50 "The brothels at RABAUL were under Military control..일본여성
- 조서 No. 52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중국, 라바울에 군위안소
- 조서 No. 53 (군 위안소 제공다른 자료에서 확인할 것)
- 조서 No. 57 라바울에 20개 군위안소, 이 가운데 5개 KOKOPO 지역 나머지는 도심. 모두 일본여성. The brothels were mainly patronized by the officers; men could rarely gain admittance. 장교 5엔 men 1엔.(같은 내용 아래 No. 78, 7쪽(미수록))
- 조서 No. 60 야전작전지역 (field operational areas) 위안소 군 설립 통제
- 조서 No. 63 라바울 위안소는 RIKUJO KIMMU(Land Duty) units의 감독(direction)하 민간인 운영 "played out" Jap 일본기생/작부?
- 조서 No. 67 라바울에서 중국노무자(coolies) 못들어감. 군부 유지. 조선여성.
- 조서 No. 78 1943년 현재 라바울 일본군부대조직(94쪽) 라바울 해군위안소. 20-25세의 일본직업여성이라고 들음. (7쪽에 수익 사업주(proprietor)에 돌아감)
- 조서 No. 94 군의 - 군의 위안소 운영 부인 but merely supervised those run by civilians under an arrangement whereby supervision began with the war and ended immediately after cessation of hostilities (방첩 목적을 가진 것일 따름이란 것 시사) 그러나 다른 자료 집에서 확인할 필요.
- 조서 No. 104 군 위안소 제공. 2000명의 군인에 한 명. 장교만 (미수록 No. 175도 같은 내용)
- 조서 No. 573 "20. 특수정보"항목아래 "Brothels in PI-Manila" 몇몇은 군관할권 아래에 있었음. 민간운영은 헌병 이용하지 못하게. 민간운영업소의 경우 스페인계 필리핀 여성 10-20엔; 군통제 위안소의 경우 일본, 조선 여성 2-3엔. 덜 봄비는 전자의 경우 훨씬 인기 있었음.
- 포르심문조서 (이름 지워짐) (부대 구성). 1942년 말경 라바울 3집 총 약 10명. 군의 허가를 받았을 것. 군은 위안소 운영자에게 건물 임대. 중국, 조선, 인니 여성 20-25세. 정부가 이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점령전 설립되었다고 함. 매주 Army Medical Corps 군의료부대의 검진 받음. 성병에 걸리면 건강회복까지 일하는 것이 금지됨. 가격은 지역마다 다름. 평균 2.5엔. 일본보다 싼. 약 2배. 1시간 머뭄, 차와 파자, 세면실 사용 prophylaxis(군 무료제공) treatment. SAKKU의 이용 강제적이나 군제공하지 않음. 턱없이 비싼 가격에 맥주, 주류, 음식 판매. 군인 성병검사 없음. 군법은 원주민과의 성교점 금지.
- 시보(Bulletin) No. 1483: 1942.6.9 일본군위안부 다바오에 파견.
Item 1 Doc 14563 (2월 12일 초우선 화물보다 먼저 위안부 KUSHING에 도착; 6월 9일 DALIAO(다바오에서 서쪽으로 20킬로) 군위안부 이미 도착
- 시사번역(Current Translations) No. 100: 라바울 Regulations of Naval brothel(Atis 1102) "special warehouses"? right to practice 요금 차별...
- 조사보고서(Research Report) No. 120 (2) 「일본군 편의시설」 (1945.2.16 남서태평양지역 총사령부) C. A. Willoughby(G-2 참모부관) 오락 항목에 위안소 넣음. 버마, 수마트라, 남서태평양지역으로 나누어 고찰. Palau의 Koror 위안소?
버마의 경우 각 division은 5-6 위안소 부설. 조선, 일본여성. 가격등.; AKYAB에 조선, 일본 위안부. 또한 HPARABYIN과 ALETHANGYAW(장교만 이용); IMAMURA, Masayuki 일요일 이용(8쪽). 병사용 위안부는 조선인. 매주 검진
18쪽의 결론에 "The establishment of brothels is sanctioned by military authorities in

any areas where there are large numbers of troops." "Inmates of these brothels are regularly inspected for venereal diseases."

-조사보고서(Research Report) No. 120 (1) 「일본군 편의시설」(1945.11.15 연합군최고사령부)

5: 전방지역 위안소설치 오락 제공.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의견차이. 남서태평양지역의 경우 사적 소유이나 군감독

9: 마닐라 규정 - 군지정위안소의 예 - 위안부에 대한 통제 - 계약해지규정 그러나 군의 관여

10: army ticket과 relaxation ticket - 가격통제 - 음식, 난방 등은 운영자 책임

11: 일상 통제-헌병 이용자 통제

12: 미성년자 고용여지 있음- South sector(남부방면군?)의 경우

14: TACLOBAN 규정

16: BUKUTO KUN, KYO TANSU - Burauen 지역 - 책임자 명단 - 98 비행장대대

17: 라바울의 경우 - 버마 - 조선 KEIJO(경성)의 army headquarters에 위안부 데려가 영업할 것 신청 - 여성 매입 - 조선군사령부 letter - 793명 - 무료운송표 군 제공 - 경로(부산 대만 싱가포르 미얀마) 40일 소요 - 20-30명으로 나뉨 - 114 보병연대에 배속

18: MYITKYNA 지역 3개 위안소 - 누구도 돌아가지 못함 - NAGASUE 대위 책임자 - 이 지역 철수시 유기

19: 각군(division)에 5-6개의 위안소 - 이용사병 이름 - 수마트라의 경우 - 남서태평양지역

27: 결론으로 "The establishment of brothels under strict regulation is sanctioned by military authorities in any areas where there are large numbers of troops." "Inmates of these brothels are regularly inspected for venereal diseases."

33-36: 위안소이름과 사업주의 이름

* 미치나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인 요리점 주인 기다무라 부처는 조선군사령부의 조종하에 취직 등 사기수단으로, 미리 건네준 준비금으로 속박한 처녀들 22명을 데리고 700여 명의 다른 한인 여성과 함께 새로 점령한 버마에 가게 된다. 기다무라는 이곳저곳에서 지정영업하다가 미지막으로 미치나에 배정되었다. 이곳에는 이미 두 곳의 위안소가 있었는데 그 중 한 곳인 모모야(桃屋)에는 중국 광둥성에서 끌려온 여인들 21명이 있었고 '긴수이'에는 한인 '위안부' 20명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114보병연대의 나가스에 대위의 감독관리하에 놓여 있었다. 1944년 5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군과 중국군의 합동공격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7월 31일 마루야마 연대장은 건강한 군인 600명과 '위안부' 60여 명을 대동하여 이라와지강 동쪽의 바모를 향하여 적전(敵前) 후퇴하게 되었다.³⁾ 이때 원래 25명이었던 중국인 '위안부' 중 3명이 포격으로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입어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들을 연대장은 쏘아 죽였다고 했다.

3) South-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Interrogation Bulletin(Psychological Warfare) No. 2(1944 November 30) 중의 para 4 The Notorious Col MARUYAMA와 para 9 A Japanese Army Brothel in the Forward Area. National Archives RG 165 E 79 Box 2303. U.S. Office of War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Team attached to U.S. Army Force s India-Burma Theater. Japanese POW Interrogation Report No. 49(October 1, 1944), 20 Korean Comfort Girls 등 참조

逃出魔窟的姊妹群

兩個月前, 我軍攻占密芝那前後, 沙東突然來了二十位廣東女人 她們的故事是悲慘的.

五年以前 她們在家鄉被敵人抓入魔窟, 在慰安所裏度着沒有白天和夜晚的生活. 以後, 又跟着敵軍由廣東徙到香港, 上海, 泰國;再由泰國來到緬甸. 我軍圍攻密芝那的時候, 她們正在密芝那的慰安所裏受着苦痛的煎熬.那時, 她們的人數一共是二十五個, 後來三個在轟炸裏死去, 兩個也因轟炸受傷. 但我軍攻城的砲聲, 使她們死水似的心裏起了激動, 孕育着一個新的希望. 到了密城危急, 敵軍一位梁大佐命令她們先遷往八莫, 受傷的兩個因為傷重不願去, 結果被大佐打死. 在退還八莫的路, 日軍在先頭帶路, 其次是二十五位和她們同樣命運的朝鮮女子, 最後便是她們二十個. 她們事先商量妥當, 就乘前面敵人不注意的時候 躲進路傍山林裏, 想逃到國軍的駐地. 但她們每天在山林裏轉着, 每天都找不出路徑, 認不清方面. 儘管飢餓, 寒冷, 蜥蜴和蠅蚊侵襲着她們脆弱的身體, 她們却仍然在山林裏流轉着. 她們流轉了十五天, 吃了十五天的 竹筍和野菜, 才到了沙東……

她們二十人中, 有兩位年紀四十多歲的老婦人, 在慰安所裏 替她們煮飯洗衣的;還有一位八歲的女孩, 是一位老婦人的女兒. 其餘十七位的年紀都是二十四歲左右. 而她們的青春却已在慰安所裏悄悄萎謝. 她們在慰安所裏, 每天只有兩頓飯吃, '皇軍們來尋求慰安的費用, 要被抽去十分之九的' 花捐. 想一想, 五年慰安所的生活, 那簡直比地獄裏的生活還不如啊!'
방선주, 237-8. 특히 "부상을 당하여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은 2명의 중국 여성을 죽인 것으로 생각되는 마루야마 대좌는 패전 후 일본에 생환하여 심문도 받았으나 미군에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2. 연합군 동남아시아번역·심문센터(SEATIC) 관계문서

South-East Asia Translation and Interrogation Center

SEATIC Psychological Warfare Bulletin No. 116

SAHMAW 부근 - "Nearly all camps along the railway line had comfort stations 통상 조선 중국여성

SEATIC Air Bulletin No. 131 (선박의 움직임) Sup Pte의 경우 월 24엔 봉급

SEATIC Psychological Warfare Bulletin No. 182 직접 언급 없음

SEATIC Air Bulletin No. 186 MEIKTILA에 5개 위안소

SEATIC Topographical Bulletin No. 197 Banpong의 위안소(지도: 병영에 붙어있음)

3. 미국전쟁정보국(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관계자료

심리전작전반(Psychological Warfare Team)보고서(Japanese Prisoner of War Information Report) No. 49 (Oct.1 1944)

Burma Mytkyina 포획 20명의 조선여성 심문

1: 위안부 "nothing more than a prostitute or "professional camp follower" attached to

4) 1944년 10월 17일자 중경(重慶)판 『대공보(大公報)』에 실린 리포트 「전면변계국군회사경과(緬緬邊界國軍會師經過)」 참조

버마에서 해방된 중국인 위안부는 버마 내에서 같이 진격하고 있던 맹방 중국의 여성이어서 그런지 대우가 좋은 것 같고 사진도 많이 남아 있는데 모두 '강제'로 잡혀서 위안부 노릇을 했어야 했다고 적혀 있다. National Archives RG 208-AA-314 J의 4매 사진과 뉴스란 참조

In the Sitting area, where the Japanese 28th Army was cut-off and annihilated in its attempts to break out from Burma into Siam, many prisoners were taken. With them were found a small party of Chinese girls forcibly employed by the Japs in their 'Comfort Corps'.

With the prisoners captured in the Penwecon area along the Toungoo-Pegu Road, were Chinese girls taken into captivity at Canton and forced to act as a 'Comfort corps' to Japanese soldiers. Cpl. Gallagher, of Manchester, brings five of the girls to safety.

the Japanese Army for the benefit of the soldiers" 이들은 "found wherever it was necessary for the Japanese Army to fight" 1942년 703명 운송됨 - recruiting - false representations - 성분

2: 1942.8.20 랑군 도착 - 군으로부터 식량 배급 받지 않음 - 생활상

3: 1943년 일부 귀한

4: 사쿠 군 지급 - 마루야마 대령 - 결혼 - 위문품에 립스틱 wooden clog 포함

5: 여우구멍에서도 일

6: 위안부 체포 선전하지말 것 부탁

첨부 A에 명단

215 사진의 김은 간호보조원(nurses aid)으로 근무